르브론 "등번호 23번? 조던 닮고 싶어서"

미국프로농구(NBA)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35)가 자신이 등번호 '23번' 을 다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18일 '머니투데이' 가 미국 블리처리포트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르브론은 전날 '등번호 23번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는 질문을 받고 "위대한 마이클 조던(56)을 위해 쓰고 있다." 고 밝혔다.

이어 르브론은 "나는 조던처럼 뛰어오르고 싶었고, 그와 같이 슛을 던지고 싶었다. 또 조던처럼 덩크슛을 하고 싶었다. 그리고 조던처럼 공중에서 혀를 내밀며 날고 싶었다. 나는 조던과 같이 누군가를 향해 포효하고 싶었다." 고 말했다.

23번은 조던을 대표하는 숫자다. 1990년대 시카고 불스 왕조를 이끌던 조던은 통산 3만 2,292점(1,072경기), 평균 득점 30.1점을 기록한 전설적인 선수다. 또 시카고 소속으로 6차례 우승(1991, 1992, 1993, 1996, 1997, 1998년)을 경험했다.

르브론의 대표 등번호도 23번이다. 또 르브론은 NBA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지난 시즌까지 NBA 15시즌을 뛰면서 올스타 14회, NBA 우승 3회, MVP 4회, 파이널 MVP 3회 등의 성적을 남겼다.

한편 2003년 현역에서 은퇴한 조던은 2010년부터 고향 노스캐롤라이나주 연고팀인 샬럿 호넷츠의 구단주를 맡고 있다.

최지만, "대표 팀? 불러 주면 팀 설득해서라도 갈 것"

최지만(28·탬파베이·사진)이 경력 최고 시즌을 목표로 스프링 트레이닝을 시작했다. 소속팀뿐만 아니다. 대표팀에서도 자신의 기량을 보여줄 기회가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

19일 '스포티비뉴스' 에 따르면 지난해 탬파베이로 트레이드된 뒤 팀의 핵심 선수로 자리한 최지만은 첫 풀타임 시즌을 기다리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최지만이 주전 지명타자로 뛸 것이라 예상한다. 플래툰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적어도 미국 진출 이후 가장 안정적으로 시즌을 시작하는 것은 분명하다.

비시즌 동안 애리조나에 머문 최지만은 타격 대신 웨이트 트레이닝, 순발력 운동, 코어 운동 위주로 착실하게 몸을 만들었다. 현재 몸 상태는 아주 좋다. 스스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다.

최지만은 대표팀에 대한 욕심도 드러냈다. 최지만은 "태극마크를 달아본 적이 없다. 청소년 때는 미국 진출 때문에 못 갔다." 면서 "모든 스포츠가 그렇듯 나라를 대표하는 것은 영광이다. 한 번쯤 해보고 싶다." 고 강조했다.

최지만은 탬파베이 25인 로스터에 들어가 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월드베이스볼래식(WBC) 정도를 빼면 대표팀 차출에 부정적이다. WBC 출전도 반대하는 구단들이 많다.

김경문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대표팀은 올해 11월 프리미어12, 내년 도쿄올림픽을 바라보고 있다. 원래대로라면 최지만이 출전하기 어려운 대회다. 하지만 최지만은 기회만 준다면 소속팀을 설득해서라도 대표팀에 참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최지만은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반대에 대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선수가 강력하게 주장하면 갈 수 있을 것 같다." 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아시안게임 때도 최지만은 구단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표팀의 호출은 없었다.

프리미어12는 군 혜택이 없다. 올림픽은 메달 획득을 장담하기 어렵다. 최지만도 군 문제와는 전혀 무관한 개인적 소망이라고 누차 강조했다. 첫 풀타임과 대표팀 합류라는 두 토끼를 쫓는 최지만이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숨은그림찾기 정답

ML 사인 훔치기 규정 강화 외야 카메라 설치 불가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사인 훔치기' 에 대해 강력 규제하기로 했다. 첨단 장비를 이용한 사인 훔치기가 경기 시간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경향신문' 이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SI)' 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리그 규정 변경을 통해 사인 훔치기를 금지하기로 했다. 외야에는 경기 중계용 카메라 외에 다른 카메라는 설치할 수 없다. 경기장 내부 중계화면은 모두 8초 늦춰져 방영된다.

비디오 판독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리플레이 담당관만 실시간 중계를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포수 사인을 읽고 전달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게 다른 카메라로 감시하기로 했다.

단장과 감독은 매 시즌 전과 후로 사인 훔치기 방지 규정 숙지 서류에 서명을 해야 한다.

지난해 단장 회의 때 이같은 규정 변경이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SI의 보도에 따르면 최소 6개 구단이 외야에 카메라를 설치해 사인 훔치기를 시도했다. 이외에도 몇몇 구단이 사인 훔치기에 대한 강한 의심을 받고 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구단들의 사인 훔치기 시도가 각 구단의 사인을 복잡하게 만들고 이 때문에 경기 시간이 길어진다고 분석했다. 사무국은 구단이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엄중 경고를 넘어 실효적 징계를 하기로 했다. 징계에는 신인 드래프트 권리 축소, 해외 아마추어 계약금 삭감 등이 포함된다.